

광산구 광주송정역 일대 변화의 중심...미래가치 품은 브랜드 아파트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광산' 이달 중 분양 예정

현대엔지니어링은 6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420-10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 광산'을 분양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광산은 지하 2층, 지상 10층~14층, 12개동, 전용면적 84㎡ 425세대와 116㎡ 3세대 총 428세대 규모로 이뤄진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84㎡A 218세대 △84㎡B 207세대 △116㎡A 2세대 △116㎡B 1세대로 구성된다.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선운2지구 개발,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등 미래가치 높아

힐스테이트 광산은 주변으로 개발호재가 다수 예정돼 미래가치가 높다. 우선 사업지 남서측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이전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금호타이어와 미래에셋대우는 공장 이전 및 부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단지 북서측으로는 택지 개발이 예정돼 있어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운2지구는 총 39만 8,000여㎡의 부지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3,000여 세대와 공원, 학교, 도로, 관공서, 상업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되며 2024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지와 약 2km 거리에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도 계획돼 있다. 광주송정역 인근 59만5,000여㎡의 부지를 산업·업무·주거·상업이 어우러진 융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이 사업은 약 5,90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되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KTX 호남선, SRT 수서고속철도, 광주제2순환도로, 무안~광주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우수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광주송정역을 통해 KTX 서울역과 SRT 수서역까

지 약 2시간 내 도착 가능하며, 광주제2순환고속도로, 무안~광주고속도로, 13번 국도를 이용하여 광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광주 도심에서 동서로 가로지르는 상무대로를 통해 광주 시내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 단지 앞 송정중앙초 위치...산업단지 인접한 직주근접 최적 입지

교육여건도 양호하다. 단지 앞 송정중앙초등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송정중학교, 정광중학교, 정광고등학교 등도 반경 약 1km 내에 위치한다. 이외에 시에서 운영하는 광주송정도서관도 가깝다.

직주근접 배후수요도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인근으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도 더불어 한국전력공사 광산지사, 아모레퍼시픽 물류센터 등이 자리하고 있는 소촌일반산업단지가 가까이 위치해 있다.

■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수요자 선호 높은 전용면적 84㎡ 99% 이상

힐스테이트 광산은 전 세대가 남향(남동, 남서) 위주로 배치돼 채광 및 쾌적성이 우수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형으로 불릴 만큼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가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설계도 우수하다. 전용면적 84㎡ A타입은 4BAY 판상형 구조로 맞통풍이 가능해 환기가 용이하다. 안방은 넓은 드레스룸이 적용돼 수납공간이 넉넉하고, 현관과 주방 사이에는 팬트리와 설치돼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타워형 구조인 전용면적 84㎡B타입의 경우 수납공간 확보를 위해 복도 수납장이 제공된다.

미세먼지 유입 저감을 위해 세대 현관에 에어샤워 시스템(유상흡연)도 적용된다. 세대 현관 천장에 에어샤워기가 설치돼 외부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신발장에 설치된



힐스테이트 광산 투시도

지하 2층 · 지상 10층~14층 12개동...전용면적 84㎡ · 116㎡ 총 428세대 규모
반경 약 1km 광주송정역...광주제2순환도로 · 무안광주고속도로 등 교통망 우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 선운2지구 ·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등 개발 예정

에어브러시를 통해서도 옷이나 신발 등에 흡착된 미세먼지를 없애 세대 내 쾌적한 실내 공기 유지가 가능하다.

외관 특화 설계도 눈에 띈다. 주동 색채를 특화해 감각적인 외관을 자랑하며 저층부 3개층은 석재를 이용한 마감으로 품격을 더했다.

■ 브랜드평판 14개월 연속 1위 힐스테이트...브랜드 프리미엄 기대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한국기업평판연구

소가 매달 실시하는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은 국토교통부가 2019년 발표한 시공능력 평가에서 7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신용평가 기준 회사 신용등급도 5년 연속(2015년~2019년) 업계 최고 수준인 AA-(안정적)를 획득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광산은 광주에서도 교통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는 광산구 신규 중심축에 들어서는 데다 주변으

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라며 "여기에 단지 가까이 예정돼 있는 개발호재로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새 아파트로 조성되는 만큼 미래가치도 높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광산의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513(임팩트광주명품백화점, 옛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 인근)에 6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분양문의: 1577-092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복합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7월부터 주택 매매 · 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보금자리론 받으면 3개월 내 전입 ·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다음 달부터 주택 매매 · 임대사업자(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지역 주택 매매 ·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 ·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LTV 20~50%, 비규제지역 내의 경우 LTV 규제가 없었지만 모든 지역의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주택 매매 ·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행정지도 시행 전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도 신설했다. 현재는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금은 회수된다.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인 다음달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했다.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됐다.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시행 후 투기 ·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기존의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돼 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도 강화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년 내, 조정대상 지역은 2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1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준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축소된다.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했다. 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토종씨앗 지키다” 도시농부장터

20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옛 광주학생회관) 앞마당

도시농부들이 직접 기른 작물을 나누고 판매하는 '도시농부장터' 아홉 번째 행사가 열린다.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는 20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광주 동구 충장로 광주시청 소년삶디자인센터(옛 학생회관) 뒷마당에서 '보자기장'을 연다.

'보자기장'은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5차 의제인 도시농업 실천사업의 하나로 토종씨앗을 지키고 보존하는 도시농부들이 운영하는 작은 농부장터다.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가 주관, 광주도시농민지원협의회가 후원한다.

2018년 시작된 보자기장은 두 달에 한 번씩 열린다. 토종씨앗을 심고 기르는 도시농부들, 직접 심고 기른 작물로 요리하는 요리사들, 수공예품을 만드는 예술가들이 참여한다.

농부들은 정성껏 재배한 제철 쌈채소와

매실, 도시양봉꿀, 건조사리, 햇마늘, 양파, 삶은 죽순 등을 판매한다.

광주토종학교, 호미한자무도농업연구소, 고내네풀약방, 품앗이농협동조합, 들쇠네토마토공장, 맑은작은정미소 등이 참여한다. 귀농운동본부는 토종모종과 토종씨앗을 나눈다.

음식과 수공예품은 세상에서 가장 느린 식량 청년요리사들의 요리와 통곡물빵, 건강한 참기름 · 들기름, 나무소금 등 요리와 수공예품을 선보인다.

체험과 캠페인도 펼친다. 광주녹색당은 탈핵 캠페인과 길고양이 도시락, 반려동물 간식을 판매한다. 1.5℃ 모임은 기후위기 캠페인과 퀴즈, 어울림텃밭학교는 꽃단지 만들기 무료 체험 행사를 연다.

보자기장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다. 개인컵과 장바구니, 보자기를 준비해 가야 한다. 집에서 쓰지 않는 장바구니와 보자기 기부도 받는다.

“경제 재개로 전세계 코로나19 불안감 완화”

한국 딜로이트그룹 설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됐던 국가들이 속속 경제 재개에 나서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의 불안감이 완화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 딜로이트그룹이 발간한 '글로벌 소비자 행동설문조사 II: 느리고 불안정한 회복기'의 '진입' 리포트에 따르면 인도와 멕시코 등은 여전히 높지만, 조사 대상이 된 17개국의 순(net)불안감 정도는 대체로 낮아졌다. 설문조사는 4월 중순, 4월 말, 5월 중순,

5월 말 등 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중국은 3%에서 -1%로 떨어졌다가 13%, 2% 등으로 다시 높아졌다. 한국은 -6%로 시작해 -19%까지 떨어졌으나, 이태원발(發) 코로나19 재확산에 9%까지 치솟은 후 다시 -5%로 낮아졌다.

유럽 국가들 중 독일은 -1%, -21%, -33%, -37% 등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는 국민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집단지적 불안감 수준은 4월 말보다 완화되는 추세다. 4월 말에는 지난주보다 불안감을 느끼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나, 5월 말 조사에서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수 국가가 불안감 수준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